

2026년 7월 28일

##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 기업 달러예금, 환율의 숨은 변수

2026년 6월 말 현재 국내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중 달러화 예금은 전월보다 22.5억 달러 증가한 97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959.3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증권사 고객예탁금 증가와 대기업의 수출대금 유입 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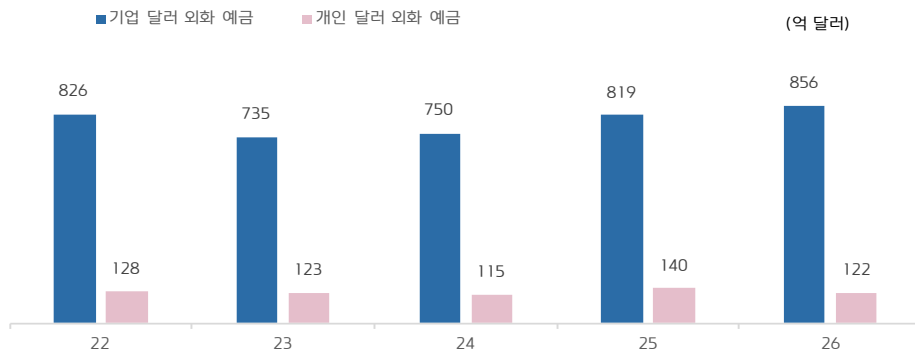
주체별로 보면 기업 달러화 예금은 855.8억 달러로 5월(829.9억 달러)보다 증가한 반면, 개인 달러화 예금은 122.2억 달러로 전월(125.7억 달러)은 물론 지난해 말(140.1억 달러)보다도 감소했다. 기업 중심으로 달러 예금이 늘어난 것은 수출 호조에 따른 외화 유입이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업들이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처럼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 예금은 향후 환율 흐름에 따라 잠재적인 달러 공급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환율 상승 기대가 약화되거나 국내 투자·설비투자·배당 등 원화 수요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은 보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높은 기업 달러 예금은 달러 수요를 의미하는 동시에 향후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대기 물량'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최근 달러/원 환율 하락 역시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 미국 달러 약세보다 국내 요인의 영향이 더 컸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2분기 경제성장률, 한·미 금리차 축소 기대, SK 하이닉스 ADR 관련 환전과 기업들의 원화 환전 수요 등이 환율 하락을 이끌었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원 환율 추가 상승 기대가 이전보다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단기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이러한 기대 심리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다. 기업들이 보유한 약 856억 달러의 달러 예금이 계속 예금으로 남을지, 아니면 원화 환전으로 이어질지는 환율 방향성에 대한 인식과 국내 투자·자금 수요에 달려 있다. 따라서 향후 달러/원 환율은 대외 변수뿐 아니라 기업 달러 예금의 움직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변화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국내 주체별 거주자 달러화 예금 잔액 추이(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Macro Snapshot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